

Handball

KOREA

핸드볼코리아

2023년 9·10월 제66호



OPENING SPECIAL

반갑다! 핸드볼 통합리그
2023-2024시즌 주목해야 할 5가지 변화

INTERVIEW

외국인 감독 시대 연 SK호크스
누누 아우바레스 신임 감독

INSIGHT

냉탕과 온탕 오간 시그널호,
한국 여자 핸드볼의 미래는?

DRAFT PREVIEW

통합리그 미래 이끌 원석을 찾아라
남·여 신인드래프트 관전 포인트

COVER STAR

하리그에서도 '어우두' 야심
두산,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

눈앞에 펼쳐질 ICT세상, SK하이닉스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Handball

핸드볼코리아

KOREA

C O N T E N T S

2023년 9·10월 제66호

12



02 OPENING SPECIAL

‘반갑다! 핸드볼 통합리그’
2023·2024시즌 주목해야 할 5가지 변화

06 COVER STORY

H리그에서도 ‘어우두’ 야심
두산,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12 INTERVIEW

외국인 감독 시대 연 SK호크스
누누 아우바레스 신임 감독

16 DRAFT PREVIEW

통합리그 미래 이끌 원석을 찾아라
남·여 신인드래프트 관련 포인트

20 HANGZHOU 2022

아쉬운 성적, 전화위복 계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한국 핸드볼에 주는 교훈

24 INSIGHT

냉탕과 온탕 오간 시그널호,
한국 여자 핸드볼의 미래는?

28 COURT SIDE

핸드볼과 우연한 만남, 그리고 끝없는 노력
남자 대표팀 이창범 통역

30 U-LEAGUE

3년 만에 패권 탈환한 경희대
전국대학핸드볼통합선수권대회 결산

32 TEAM

‘원 팀’이 된 인화여자중학교,
분주하고 화려했던 2023년을 마무리하다

34 NEWS & READERS COMMENTS

핸드볼 뉴스 및 독자의견

제작협찬



발행일 2023년 10월 20일 | 통권 66호 | 정보간행물
기획 정규오 편집 (주)제이앤제이미디어
TEL 02-6200-1414 FAX 02-420-5337

등록번호 송파 다 00018 발행인 및 편집인 안지환
발행처 (사)대한핸드볼협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핸드볼경기장 3층
E-mail handball_pr@sports.or.kr Homepage www.handballkorea.com

‘반갑다! 핸드볼 통합리그’ 2023-2024시즌 주목해야 할 5가지 변화

핸드볼 통합리그인 H리그의 대망의 첫 시즌이 찾아온다. 통합리그 출범과 함께 한국핸드볼연맹은(이하 연맹) 다양한 시도와 변화로 팬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2023-2024 핸드볼 통합리그에서 주목해야 될 5가지의 변화를 정리해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핸드볼협회 제공



1. 11월 11일 정규리그 개막 팡파르

2023-2024시즌 정규리그는 11월 11일 개막해 2024년 3월까지 이어진다. 이번 시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구·안동 등 전국 8개 지역을 매주 순회하며 진행한다. 경기 수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다. 우선 남자부는 기존 팀당 4라운드에서 5라운드로 1라운드가 늘어난다. 여자부는 기존대로 3라운드(84경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각팀은 순위를 가른 뒤 내년 4월부터 플레이오프(PO)와 챔피언결정전을 치른다. 공식 개막전은 여자부 SK슈가글라이더즈와 부산시청공단(오후 2시), 남자부는 충남도청과 국군체육부대의 맞대결로 펼쳐진다. 경기 시간은 오후 2시/4시로 이전과 동일하다.

2. 통합리그 첫 시즌, 두산·삼척시청 독주 계속될까

통합리그에서도 어우두(어차피 우승은 두산)라는 수식어는 유효할까. SK핸드볼리가 출범한 이후 두산은 2014시즌 1차례를 제외하고 총 11번 우승했다. 또한 최근 8시즌 연속 우승해 야구계에서 한때 유행했던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만들기도 했다. 실업리그 첫 시즌과 마지막 시즌을 모두 우승으로 장식한 두산은 통합리그 초대챔피언에 도전한다. 두산은 2023-2024시즌에도 여전히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새 시즌 두산의 타이틀 방어에 마냥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시즌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해 다수의 팀들이 전력을 강화하고 ‘타도



두산'을 외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스페인 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유턴한 국가대표 주전 라이트백 김진영을 영입하며 전력을 대폭 강화했다. 또, 지난 시즌 4위에 그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SK 호크스는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인 누누 아우바레스 감독을 선임하며 팀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자부에서는 실업리그 2연패를 달성했던 삼척시청이 통합리그에서도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사다. 2년차를 맞은 김민서, 대표팀에서 한층 더 성장한 김보은, 베테랑 김온아가 건재한 만큼 새 시즌에도 우승권에서 놀 것이라는 예상이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MVP 강경민을 앞세운 광주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SK슈가글라이더즈 등이 삼척시청에 대적할만한 경쟁 팀으로 주목 받고 있다.

3. 통합리그 빛낼 뉴 스타는?

종목 불문하고 리그 흥행 열풍에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한 경기에 많게는 수 천명의 팬들을 몰고 다니는 '맨 파워'가 각 리그 흥행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핸드볼 실업리그는 장기간 스타 플레이어 기근에 시달렸다. 실업리그의 스타 플레이어는 윤경신, 김온아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그래서 핸드볼 열기를 다시 일으킬 스타 탄생과 팬들의 갈증을 풀어줄 흥행 카드가 필요하다. 연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타 만들기, 스타 어필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새 시즌 통합리그를 달굴 대표적인 스타 플



레이어는 누가 있을까. 지난 시즌 정규리그 MVP 이요셉(국군체육부대)과 강경민(광주도시공사)를 비롯해 2년차를 맞이한 김민서(삼척시청), 스페인 리그 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유턴한 국가대표 주전 라이트백 김진영(인천도시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98년생 동갑내기 트리플로 유명한 이요셉, 박세웅, 신재섭은 국군체육부대에서 한술밥을 먹게 됐다는 점에서 팬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 하다.

4. 웰컴 맥스포츠 미디어

연맹은 통합리그 출범에 앞서 새로운 중계사 찾기에 여념을 보냈다. 새로운 파트너가 된 맥 스포츠 미디어(이하 맥스포츠). 연맹은 지난 8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공동출자로 스포츠 전문채널 출범을 위한 미디어 법인 '맥 스포츠 미디어'를 설립했다. 연맹은 맥 스포츠와 함께 2023~2024시즌부터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통합리그 정규경기 및 플레이오프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핸드볼 경기에 대한 중계권 및 뉴미디어 사업, 유무선과 기록 판매 사업에 대한 제반 권리(재판매권 포함)를 갖는다.



5. 남녀 신인드래프트 10월 26일 동시 개최

연맹은 통합리그 출범에 발맞춰 기존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남자부에도 신인 드래프트제를 도입했다. 오는 10월 26일(목), 남녀 신인 드래프트를 사상 최초로 동시에 개최된다. 남녀 신인드래프트 동시 개최로 향후 통합리그를 이끌 남녀 유망주들이 어느 팀으로 향하는 지 한 눈에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이번 드래프트에는 남자부 이혁규(187cm), 조선대 강준구(182cm), 한국체대 김찬영(178cm)을 비롯해 여자부에선 휘경여고 박수정(168cm), 일신여고 김지아(171cm), 인천비즈니스고 임서영(174cm), 황지정산고 김세진(174cm) 등 지난 해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 주역들이 대거 참가한다.

한편, 통합리그 남녀 드래프트는 기존 여자실업핸드볼 드래프트 방식과 동일하게 현장 추첨으로 지명 순서를 결정한다. 100개의 추첨 구슬을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종 순위 역순으로 차등 분배한다. 구슬이 뽑힌 순서에 따라 드래프트 지명 순서가 결정된다. 각 팀은 라운드에 상관없이 총 2명 이상의 선수를 지명해야 한다. 위 조항의 위반 시 다음라운드 선수지명에 있어 최하위 순위로 하며, 총 2명의 선수 미 지명시 차기년도 선수드래프트에서 매 라운드 최하순위 지명권을 부여하며, 당해 연도 FA영입을 제한한다.



정호진

김민근

박찬영

H리그에서도 ‘어우두’ 야심 두산,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두산은 남자 핸드볼 팀 중 전무후무하게 통합 8연패를 달성한 최강 팀이다.

한국핸드볼연맹은 오는 2023-2024시즌부터 이른바 H리그라 불리는 통합리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코리아리그 마지막 시즌을 우승, 화려한 피날레로 실업 무대 끝을 장식한 만큼 통합리그 초대 챔피언에 대한 열망도 크다. 그렇기에 두산은 다른 팀들보다 시즌을 일찍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승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윤경신 감독은 6월 초부터 선수단을 소집해 2023-2024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최고참 박찬영과 정의경을 중심으로 두산 선수단은 리그 개막을 앞두고 ‘통합리그 초대 챔피언’이라는 목표 아래 단내나게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늦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10월 12일, 구리시체육관에 다녀왔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두산 8연패 역사 일군 베테랑 박찬영·정의경 “올해도 술선수범 자세와 팀워크가 우선”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이 두 선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바로 베테랑 골키퍼 박찬영과 센터백 정의경이다.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두 베테랑은 불혹의 나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경쟁력을 발휘하며 두산을 지탱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시즌에도 현역으로 코트를 계속 누빌 예정이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어쩌면 선수 인생 마지막 시즌이 될지도 모른다. 더욱 단단한 각오 속에 2023-2024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에게 7가지 키워드로 질문을 던져 봤다.

통합리그 기대감

박찬영 새로운 리그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발이라도 밟고 은퇴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웃음). 예전보다 팬층도 두꺼워질 것이고 핸드볼 저변확대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한다. 선수들에게도 연봉, 처우, 은퇴 후 진로 등에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정의경 이런 변화가 조금 일찍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박수칠 때 떠나라고 사실 지난 시즌 끝나고 은퇴를 고민했었다. (박)찬영이 형 말처럼 새로 바뀌는 리그에 발은 한번 담귀보고 은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현역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가야할 길은 멀지만 어쨌든 발전적인 방향을 가는 취지는 좋은 거니까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는 부분이 크다.

지난시즌 챔피언

박찬영 후배들이 잘해준 덕분에이다. 1차전을 패했지만 팀 분위기는 나쁘

지 않았다. 2차전만 잡으면 다시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 때의 짜릿함은 느껴본 사람만이 안다. 뒤통수 있을 때까지 뛰면서 우승을 더 해보고 싶다. 정의경 사실 1차전을 쳐도 크게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지 않았다. 은퇴를 각오했기 때문에 한 경기는 더 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기뻐했다. 그래서 2, 3차전은 즐기는 마음으로 임했고 동료들이 잘 뛰어준 덕분에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따낼 수 있었다.

팀워크

박찬영 두산에 온지 18년이 지났지만 은퇴하신 선배들께서 기강과 틀을 잘 닦아놓으셨기에 지금과 같은 팀워크가 유지될 수 있었다. 다른 팀에 비해 훈련량도 많고 규율도 엄격하다. 그러면서도 밖에서는 가족 같이 잘 지낸다. 밑에 후배들도 이런 팀 문화를 잘 이해하고 따라주기에 8연패라는 대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의경 술선수범이다. 선배 세대들부터 꼭 지켜보면 최고참이라도 자기 먼저 나서서 움직인다. 선배가 먼저 나서면 후배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다. 반대로 선배가 힘들어하면 팀 전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꾀없이 이겨내려고 한다. 이런 문화가 수십년째 계속 이어져오고 있고 두산만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윤경신 감독

박찬영 감독님 스타일이 화끈하시다. 훈련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고 훈련량도 많다. 대신 밖에서 만큼은 팀 동료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우애를 다지려고 노력하신다.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를 치거나 회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팀워크를 다지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정의경 훈련 시간 외에는 팀원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려고 한다. 감독님께서 회식 자리도 일부러 많이 만드신다. 회식 한번 하면



정익경

기본 5차다(웃음). 그만큼 감독님께서 선수들을 많이 생각하신다. 그런 자리를 통해 고민이나 각자의 생각들을 터놓고 이야기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국제경쟁력

박찬영 우선 통합리그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협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단 이 리그를 최대한 많이 알려야 한다. 국제대회 성적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데 국제대회 성적이 왜 좋지 않은지 분석한 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익경 남녀 불문하고 최근 국제대회에서 성적도 좋지 않다보니 선배로서도 안타까움이 크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그나마 남아 있던 팬들도 등을 돌리시는 것 같다. 국내 리그가 다시 인기를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국제대회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수들 역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선수들은 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SNS 홍보, 팬 서비스 관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

박찬영 아들, 딸 모두 핸드볼 선수 출신인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또래보다 키가 큰 편이다. 아들은 올해 5학년인데 매주 주말 KHF 핸드볼

클럽에 나가 핸드볼을 배우고 있다. 아직까지는 전문적으로 운동을 시킬 생각은 없다. 아직 어린 나이니까 지금은 핸드볼을 통해 운동의 재미를 느꼈으면 한다.

정익경 애가 셋인데 큰 아들이 7살이다.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핸드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더라. 아이들이 기억에 남아 있을 때 선수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줘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안 남은 현역 생활 잘 마무리해서 아들, 딸들에게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

초대챔피언

박찬영 실업리그 마지막 우승을 우리가 장식했고 또 다가오는 시즌 리그가 새롭게 바뀌는 만큼 첫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크다. 타이틀을 지켜야 하는 자존심도 있고 오프시즌 동안 준비도 많이 해놓았다. 이번 시즌에도 두산 특유의 팀워크를 잘 발휘해 반드시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익경 매년 우승을 해왔지만 리그가 바뀌는 첫 시즌인 만큼 우승에 대한 욕심이 난다. 시즌에 앞서 전국체전에 우승하면서 첫 단추를 잘 꿰었다.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잘해서 H리그 초대 챔피언에 등극할 수 있도록 동료들과 합심해 잘해보겠다.



박찬영



2년차가 더 기대되는 두산의 미래 피봇 김민규

두산 2년차 피봇 김민규는 지난 시즌 두산의 중앙 공격을 책임지며 28골(성공률 59.6%)을 넣어 신인왕을 차지했다. 두산이 신인왕을 배출한 건 2015년 황도엽 이후 8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그만큼 베테랑들이 준비한 팀에서 출전 기회를 잡는 것이 어려웠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민규는 챔피언결정전에서도 11차례 슛 시도 중 무려 10골(90.9%)을 성공하며 두산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으로 확실하게 눈도를 찍었다. 윤경신 감독은 “민규는 정식 선수가 아닌 훈련 선수로 팀에 들어와 짧은 시간 내 정말 많이 성장했다. 지난 시즌 성장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2년 차 시즌도 더 기대된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렸다.



오프시즌

김민규 원래 우리 팀 오프시즌 운동이 혹독하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팀 훈련량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운동량은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해내고 있다. 또, (정)의경이형, (박)찬영이 형 등 형들부터 먼저 나서서 술선수범하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안 따를 수가 없다. 지난 시즌 신인왕을 수상했지만 안주하지 않고 다음 시즌 한 단계 더 스텝업하기 위해 형들과 열심히 운동 중이다.

첫경험

김민규 시즌 초반에는 실업무대 레벨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다. 몸싸움, 경기속도 등 확실히 대학과는 수준이 달랐다. 감독님께 혼도 많이 났고 형들께 조언을 얻으면서 점차 리그에 적응해나갔던 것 같다. 초



김민규

반부에는 몸 싸움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 부딪혀왔고 똑같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임했다. 데뷔 시즌에 신인왕과 더불어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돼 나에게는 뜻 깊은 시즌이었다.

DNA

김민규 (어려울 때마다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선배) 딱히 한명을 정할 수가 없다. 우리 팀의 최대장점은 팀워크다. 선후배 간의 나이차가 많아 아무래도 후배 입장에서는 어려워하고 불편해할 수 있는데 선배님들께서 먼저 편하게 대해주시고 사소한 거 하나 하나 끊임없이 조언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전혀 없다. 고참 형들을 중심으로 두산만의 기강이나 끈끈한 문화가 짙게 잡혀 있다.

2년차

다가오는 시즌부터 리그가 바뀌는데 초대 챔피언에 오르게 되면 의미가 클 것 같다. 이번 시즌 역시 우승 타이틀을 지키는 것이 목표이고 또, 새로운 리그가 시작되는 만큼 언론, 방송 등을 통해 핸드볼이 더 많이 알려져 리그 인기가 올라갔으면 한다. 개인적으로는 수비를 더 보완하고 슛 성공률을 끌어올리고 싶다. 🍀

“공격적인 핸드볼 앞세워 새 리그 활성화 앞장서고파”

Q. 시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 군에 입대한 선수들이 있어서 훈련 인원이 많지는 않다. 개인 훈련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슈팅 등 부족한 부분을 자기계발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Q. 통합리그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스러운 부분은?

통합리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어쨌든 핸드볼 전체로 봤을 때 발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 뭐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협회, 구단관계자, 현장이 삼위일체를 이뤄 소통하고 연구해야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리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Q. 두산 감독직에 부임한지 정확히 10년 째를 맞이했다. 지난 날을 돌아해보면?

처음에는 뭇 모르고 혈기왕성하고 정열적으로 부딪혔다. 그러다보니 부임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느꼈다. 그래도 좋은 선수들을 만나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줬고 4~5년차가 되면서 선수를 관찰하는 부분과 선수 파악 능력 등 지도자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Q. 지도자로서 하고 싶은 핸드볼을 다 해봤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아직도 해보고 싶은 핸드볼이 있는가.

팬들이 보시기에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핸드볼을 추구하고 싶다. 수비



위주 핸드볼보다는 골도 많이 나고 공격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보시는 팬들 입장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될 수 있는 한 공격적이고 과감한 플레이를 많이 하라고 주문하고 있고 골을 넣었을 때 세리머니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강조한다.

Q. 핸드볼에 대한 영감은 어떻게 얻는 편인가.

평소에 독일 분데스리가와 일본 리그 경기를 많이 보는 편이다. 해외 리그 스타일이 무조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의 장점에 해외 팀들의 장점을 접목 시키면 더 좋은 핸드볼을 구사할 수 있을거라 봤다. 다행히 그런 점들이 지금까지는 잘 통하고 있다. 매년 감독으로 리그를 치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변화 없이는 발전도 없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핸드볼이 반복되다 보면 보시는 팬들 입장에서도 지루할 것이고 팀적으로 봤을 때 도태될 수 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하루에 2~3시간은 타 리그 영상을 보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Q. 혹독한 훈련량만큼 선수단 회식도 자주 한다고 들었다.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 하는 게 내 스타일이다. 선수들에게도 늘 하는 말인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만큼은 나에게 맡겨달라고 한다. 그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있다. 회식도 자주 갖곤 하는데 술을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팀 사기를 올리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남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다.



두산 윤경신 감독

Q.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유소년 선수들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 일찍이 스타성이 있는 선수들을 언론, 방송 등에 홍보해 가치를 높여줘야 한다. 협회, 구단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때와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덧붙여 각 팀에 외모가 출중한 선수들을 TV 예능에 출연시켜 더 부각시켜줄 필요도 있다고 본다.

Q. 다음 시즌 기대해볼 만한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

김민규, 김지운 등 2년차 시즌이 더 기대되는 선수들이다. 특히 김민규의 경우 첫 시즌에는 벤치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을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해줘 주전급으로 자리잡았다. 능력이 출중한 선수인 만큼 체중 관리만 잘해준다면 2년차 더 좋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Q. 새로운 리그에 임하는 각오와 목표를 들려달라.

초대 챔피언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타 팀들도 새 시즌을 앞두고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 반면 우리 팀은 3명의 선수가 군 입대해 전력 누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부담 아닌 부담도 느낀다. 그런 만큼 선수들도 책임감을 갖고 더 단단하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리그가 변화되는 만큼 저희 역시 더 재미있는 핸드볼을 팬들에게 보여드려 새로운 리그가 활성화 되는 데 앞장 서고 싶다.

외국인 감독 시대 연 SK호크스 누누 아우바레스 신임감독, “목표는 챔피언... 새로운 핸드볼 보여주겠다”

핸드볼 국가대표팀에 이어 리그에도 외국인 감독 시대가 열렸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문턱에서 아쉽게 시즌을 마감한 청주 SK호크스는 명예회복을 위해 올 시즌 포르투갈 국적의 누누 아우바레스 감독을 선임했다. 핸드볼리그 사상 외국인 감독 영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우바레스 신임 감독은 15년의 유럽 지도자 생활을 뒤로하고 아시아 무대로 눈길을 돌렸다. 풍부한 코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무대에 새로움과 신선함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Q.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하다. 리그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돼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먼저 SK호크스 감독직에 선임된 소감을 들려 달라.

무엇이든 최초의 타이틀은 의미가 크지 않다. 영광으로 생각한다. 좋게 봐준 구단에 감사함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도 느낀다. 선수단에 합류한지 딱 1달 정도 지났는데 적응하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팀적으로는 모든 전력이 아직 합류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남아 있는 선수들이 잘 따라와주고 있고 이탈해 있는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훈련하는 게 기대된다.

Q. 포르투갈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도전에 대한 갈망이 컸다. 원래 도전하는 걸 즐긴다. 또 오래 전부터 다른 나라에서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었다. 사실 한국 외에도 다른 리그에서 오퍼가 있어서 고민을 했다. SK호크스 팀에서 좋은 제안을 해줬고 구단이 앞으로 팀을 이끌어나가야 할 방향과 나의 의지가 맞아떨어져 한국행을 결정하게 됐다.

Q. 남자 대표팀 홀란두 프레이타스 감독과 친분이 있다고 들었다. 아시아 무대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프레이타스 감독에게 도움, 조언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프레이타스의 조언이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큰 계기 중 하나였다. 우리의 관계는 20년 이상 됐다. 프레이타스가 먼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소개해줬고 지도자로서 욕심이 있다면 세계 각국의 핸드볼을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해줬다. 또, 작년에 남자 대표팀이 포르투갈 전지훈련에 왔을 때 프레이타스를 만나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한국 핸드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다.

Q. 감독 선임 발표 후 프레이타스 감독은 어떤 말을 해줬는지.

최종적으로 한국행을 택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줬다. 우린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지도자다. 최근에도 아시아 안게임이 끝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만 아시안게임 결과가 좋지 못해서인지 실망감이 커보였다.

Q. 개인 기록을 찾아보니 이른 나이에 은퇴했다. 선수 시절에는 어떤 선수였나

삼형제인데 형부터 나 동생까지 전부 핸드볼을 했다. 11살 때부터 시작해 주로 센터백 포지션을 봤다. 그런데 25살쯤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었고 선수 커리어는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했다. 사실 그전에 20대 초반 때부터 유소년 선수들의 코치를 봐주면서 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은퇴한 뒤에도 핸드볼을 놓을 수 없었고 지도자로서 커리어를 쌓고자 공부하게 됐다.

Q. 이른 나이에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다행히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 지도자 커리어를 오랜 기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운’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핸드볼에 진심이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벤피카에서 5년, 스포르팅에서 2년 정도 지도 생활을 했었는데 이 때 많은 부분에서 성장

을 이뤘다. 좋은 선수들, 좋은 코치진과 함께했고 자연스럽게 지도자로서 퍼포먼스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Q. 지금까지 포르투갈, 이스라엘에서 감독 생활을 했는데 국가별로 핸드볼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가.

큰 틀에서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피지컬 중심적인 핸드볼을 추구하지만 요즘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다. 포르투갈 남부 지역은 피지컬적인 부분보다는 전술의 디테일, 짜임새 있는 핸드볼을 추구해 이기는 핸드볼을 하는 추세다.

Q. SK호크스는 지난 시즌 아쉽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SK호크스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어떤 팀으로 만들고 싶었는지.

일단 한국 핸드볼 하면 영리하고 빠르고 뾰족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 와서도 느낀 건 그런 류의 선수들이 많았다. 그런 걸 떠나 1차적으로는 선수 개개인의 강점을 더 부각시켜주고 싶다. 그리고 한국은 대체적으로 똑같은 템포로 경기 운영을 하는데 템포와 완급 조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싶다. 훈련 시에는 막연히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개념보다 기술 하나를 연습하더라도 이 연습을 내가 왜 하는지, 또 경기에서는 어떤 상황에 써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걸 선수들에게 주입시켜주고 싶다. 한국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처럼 단번에 바뀔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선수의 강점과 역량이 코트 안에서 잘 발휘될 수 있는지 끄집어낼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Q. 지휘봉을 잡고 선수단에 합류한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났다. 선수단과는 거리감이 가까워졌나.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이 중간 위치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선수단과 좀 더 깊은 유대감을 갖기 위해 짧은 단어, 용어를 정해 선수들과 필요할 때 소통하려고 한다. 아직 소통이 원활치는 않지만 분위기에 대해서는 특히 강조하고 있다. 코트 안팎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선수단과 가족 같이 함께 어울려 지내려고 한다. 좋은 분위기는 분명 코트 안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지도철학 중 하나다.

Q. 훈련의 질과 양,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개인적으로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본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훈련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선수들이 이 훈련을 왜 해야하는지 인지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뛰는 훈련, 반복적인 패턴 플레이 등 운동을 위한 훈련 훈련을 위한 훈련 개념이 많았다. 그것보다는 매일 조금이라도 다른 훈련 방법을 제시해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단계별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수들 역시 다들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여러 훈련들이 선수들 몸에 베인다면 코트 안에서도 경기력으로 증명될 것이다.

Q. SK호크스는 지난 시즌 유난히 부상자가 많았다. 올 시즌에는 군입대 자원도 있다. 선수단 구성은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인가.

박세웅이 상무에 입대해 수비적인 부분에서 공백이 클 것 같다. 대표팀에 차출된 장동현, 이현식, 하태현 이 세 선수 역시 우리 팀에 중요

한 전력이다. 김형진, 오주안 등 장기 부상자들도 많아 가용 인원이 한정적인데 지금 현재로선 남아 있는 전력들로 최선책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한국에 온 이유이기도 하다. 다행히 현실에 맞게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고 프런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고 있다. 선수들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소속은 다르지만 남녀 대표팀에 이어 또 한 명의 외국인 감독이 등장했다. 이는 한국 핸드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런 만큼 성공에 대한 갈망도 클 것 같다.

당연히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다. 하지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선수들의 성장과 발전이다. 지금 있는 선수들을 하루 빨리 프로 수준의 레벨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물론 이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핸드볼 전체의 발전을 위해 다른 팀 지도자들과도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소통하고 싶다. 나 혼자만 아닌 모두가 함께 합심해 노력한다면 한국 핸드볼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거라 본다.

Q. 원하는 목표가 있나.

모든 감독들이 아마 이기는 팀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나 역시 1차적으로 이기는 팀을 만들고 싶지만 그에 앞서 한국 팬들로 하여금 '이러한 핸드볼 스타일도 있구나' 하며 다른 시야를 갖게 해주고 싶다. 물론 한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든다. 또, 다른 구단보다 환경적인 부분, 인프라가 훨씬 잘 갖춰져 있다. 구단의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으면서 선수들이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잘 펼쳐내겠다.

Q.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오늘 촬영 어땠나.

편하게 했다. 인터뷰를 잘 이끌어줘서 감사하다. 내가 브래드피트나 조지 클루니는 아니지만 사진 예쁘게 담아주길 바란다(웃음). 📷



누누 아우바레스 감독

생년월일

1975년 6월 18일 포르투갈 리스본 출생

경력

2015-2016 포르투갈 Os Belenenses 감독

2018-2019 포르투갈 스포르팅 감독

2019-2021 포르투갈 Boa Hora 감독

2021-2022 이스라엘 마카비 디모나 감독

2022-2023 포르투갈 Almada AC 감독





통합리그 미래 이끌 원석을 찾아라 사상 첫 동시 개최되는 남·여 신인드래프트 관전 포인트

핸드볼 유망주들이 선발되는 자리가 다가온다. 여자부에 이어 올해부터는 남자부도 신인 드래프트제가 도입, 운영된다. 한국핸드볼연맹은 남자부와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를 처음으로 동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드래프트 신청 기한은 10월 24일까지이고, 신인드래프트는 10월 26일 서울 리베라호텔 베르사유홀에서 남자부와 여자부가 나뉘어 열린다. 올 한 해도 각팀 코칭스태프와 관계자들은 ‘진흙 속의 진주’와 ‘다들 어지지 않은 원석’을 찾아 심 없이 전국을 누볐다. 이제 그 결실을 수확할 시간이 온다. 벌써부터 큰 관심을 모으는 2024 신인드래프트에서 주목할 선수들은 누가 있는지 살펴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핸드볼협회 제공

황금세대 탄생? 세계청소년선수권 우승 주역 쏟아진다

올해 여자 드래프트는 황금세대들의 등장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 우승 주역인 김세진(황지정산고), 김서진, 김지아(이상 일신여고), 박수정(휘경여고), 임서영(인천비즈니스고) 등을 비롯해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아 관계자들과 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MVP 김민서(삼척시청)가 참가했던 지난해보다 선수 풀(Pool)만 놓고 보면 훨씬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지션별로 상위 지명이 유력한 선수를 살펴보자. 먼저 골키퍼에서는 한국체대 최유나(180cm)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수많은 골키퍼 유망주 사이에서도 한국체대 최유나의 존재는 단연 독보적이다. 골키퍼로서 최유나의 강점은 신체조건이다. 단단한 체격을 자랑하는 장신(181cm)으로 가로 3m·높이 2m의 핸드볼 골대 앞에 최유나가 서 있기만 해도 공격수들은 빈틈을 찾기 어렵다. 몸집

만 큰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체격이 클 경우 취약할 수 있는 순발력이 뛰어나고, 골키퍼에게 요구되는 서전트 점프까지 남달라 대형 골키퍼의 조건을 갖췄다. 실업 A팀 감독은 “골키퍼 중에 최유나처럼 피지컬과 순발력을 두루 갖춘 케이스는 드물다”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인 만큼 앞으로 한국 여자핸드볼을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극찬했다.

각 팀 코칭스태프가 가장 공 들여 다지고 있는 백 포지션에는 휘경여고 박수정(168cm), 일신여고 김지아(171cm)와 김서진(163cm), 인천비즈니스고 임서영(174cm), 한국체대 조은빈(163cm) 등 눈여겨볼 유망주들이 많다.





김세진



김서진

지난 7월 태백산기 대회에서 휘경여고를 우승으로 이끌며 MVP를 수상한 박수정은 정확한 중장거리 패스, 탁월한 경기 조율 능력을 갖춘 센터백이다. 휘경여중 시절부터 청소년 대표를 연령별로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착착 밟아왔다. 레프트백 김지아는 득점력과 노련함이 돋보이며, 임서영은 수비에 특화된 선수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 당시 BEST 7 레프트윙에 선정됐던 김서진도 이번 드래프트에서 관심을 끈다. 김서진은 득점 몰아치기가 무서운 선수로 윙 자원, 공격력이 부족한 팀에 알맞은 자원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지션은 바로 피봇이다. 황지정산고 김세진(174cm)과 한국체대 신현진(164cm)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상위 지명이 확실시된다. 이중 김세진은 지난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 멤버로 피봇 포지션이 부족한 팀에 따라 더 높은 순번에 지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초 남자 드래프트, 1순위 영광은 누가?

사실 이번 드래프트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꼽히는 선수가 몇 안 된다. 평가가 많다. 그러나 관심을 끌 이슈는 있다. 바로 대학핸드볼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3총사의 행선지다.

최초의 남자 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호명될 선수는 누굴까. 수 개월 전부터 '대학 최대어'로 주목받은 경희대 이혁규(187cm), 조선대 강준구(182cm), 한국체대 김찬영(178cm)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세 명은 각 팀 전력에 큰 도움을 줄 선수들로 꼽힌다. 세 명 중 누가 1순위가 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 선수는 기대대로 올해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먼저 대학 최고 센터백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혁규는 전방위적으로 팀을 아우르며 187cm의 장신임에도 스피드를 갖춰 돌파와 속공에 능하다. 올해 경희대는 태백산기, 대학선수권대회에서 기존 강호로 군림했던 원광대, 한국체대를 물리치고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중심에는 이혁규가 있었다.

피봇이 절실한 구단이라면 강준구를 지나칠 수 없다. 전북제일고 시절부터 득점력과 수비력 등을 두루 갖춰 대형 피봇 재목으로 촉망받았

던 강준구는 이미 저학년 때부터 성인대표팀도 몇 차례 경험하는 등 즉시전력감으로 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혁과 원투펀치를 이뤄 한국체대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김찬영의 이름도 빼놓을 수 없다. 김찬영은 스피드와 중거리슛을 겸비한 센터백으로 특히 중거리 슛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이들 외에도 윙, 백 포지션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이 몇몇 있다. 윙에서는 경희대 강덕진(175cm), 원광대 이승민(184cm)이 백에서는 한국체대 김정혁(177cm)이 각 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경희대 김승현(188cm)과 원광대 이해성(183cm)이 지명이 유력하다.

올해도 '깜짝 지명' 나올까

기본적으로 모든 팀이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드래프트 현장에 나오게 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기도 한다. 지난해의 경우 김민서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1라운드 7순위까지 내려오자 이를 놓치지 않은 삼척시청이 김민서에 손을 내밀었다. 구단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행운'이었다. 이러한 장면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일찍 지명되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몇몇 선수는 김민서처럼 예

상보다 늦게 이름이 불릴 수도 있다. 각 구단은 타임을 요청해 짧게나마 의논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드래프트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스카우트팀, 고위 관계자, 육성팀 등 매일같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 남녀 17개 구단이 어떤 결과물을 안고 드래프트를 마무리하게 될까.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

드래프트 방식

통합리그 남녀 드래프트는 기존 여자실업핸드볼 드래프트 방식과 동일하게 현장 추첨으로 지명 순서를 결정한다. 100개의 추첨 구슬을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종 순위에 역순으로 차등 분배한다. 구슬이 뽑힌 순서에 따라 드래프트 지명 순서가 결정된다. 한편, 각 팀은 라운드에 상관없이 총 2명 이상의 선수를 지명해야 한다. 위 조항의 위반 시 다음라운드 선수지명에 있어 최하위 순위로 하며, 총 2명의 선수 미 지명시 차기년도 선수드래프트에서 매 라운드 최하순위 지명권을 부여하며, 당해 연도 FA영입을 제한한다.



이혁규



강준구



김찬영



Heart to Heart, @Future

아쉬운 성적, 전화위복 계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한국 핸드볼에 주는 교훈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던 한국 핸드볼이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로 ‘노 골드’에 그쳤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여자 은메달, 남자 4강 진출 실패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여자 금메달, 남자는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했으나 남녀 모두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글.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사진. 아시아핸드볼연맹 제공

항저우에서 재연된 광저우 아픔 여자 핸드볼, 아시안게임 3연패 좌절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1990년 베이징 대회 이후 한국 핸드볼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을 하지 못한 것은 올해 항저우 대회가 처음이다. 여자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지 못한 것이 2010년 광저우와 이번 두 차례가 전부인데, 2010년 광저우에서는 남자 대표팀이 우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핸드볼은 지난해 5월 남녀 대표팀 모두 외국인 사령탑을 선임하며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을 대비했으나 첫 관문인 아시안게임을

그르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먼저 여자부의 경우 우리나라는 8월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대회에서 우승,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하며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만에 열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에 19-29로 완패해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쳤다. 아시아권에서 여자 핸드볼 판세는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절대 1강’이었고 그 뒤를 일본과 중국이 뒤쫓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성장세가 눈에 띄면서 한국의 ‘아시아 최강’ 자리를 위협했고 결국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달미를 잡혔다.

2021년 도쿄올림픽 본선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27-24로 이겼고,

2022년 한일 정기전에서도 1, 2차전을 각각 6골, 4골 차로 승리하는 등 전력 상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2022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선수권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승리했고, 올해 8월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는 한국이 1골 차로 신승했다.

2021년부터 따져보면 한국과 일본 맞대결 결과의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올해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본 승리로 넘어간 셈이다. 특히 한국 여자 핸드볼이 일본에 패한 것은 2012년 한일 정기전 이후 이번이 11년 만이다. 또 아시안게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에 진 것도 2010년 광저우 대회 준결승 이후 이번이 13년 만이었다. 다만 그 느낌이 다른 것은 2010년 우리가 일본에 졌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번’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패배는 ‘뜻밖의 결과’로 볼 수만은 없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2010년 패배 때는 ‘일본과 재대결하면 제대로 혼내줘야겠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일본과 또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상황인 셈이다.

이번 대회에 나온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국가대표 명단을 보면 이 물음표는 더 커진다.

일본은 1995년생이 최고참이지만 우리나라는 대표팀 주축인 류은희(형가리 교리)가 1990년생이고 이미경(부산시설공단)과 김선화(대구시청)는 1991년생이다. 바로 내년 열리는 올림픽은 몰라도 2026



년 다음 아시안게임을 기약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한국 여자 핸드볼은 올해 11월 개막하는 세계선수권과 내년 파리올림픽에서 다시 한 번 세계의 벽에 도전한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세계 정상급 기량을 발휘할 때는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유럽 강호들에 비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강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유럽의 신장과 파워를 당해내지 못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 5월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면서 내걸었던 한국형 핸드볼과 유럽 핸드볼의 강점을 접목하겠다는 취지가 얼마나 실현됐느냐는 결국 이번 세계선수권과 올림픽 결과로 판가름날 것이다. 대표팀 주축 멤버인 류은희와 이미경이 전성기 기량으로 출전하는

세계선수권, 올림픽도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한국 여자 핸드볼의 이번 세계선수권, 올림픽 상위권 성적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

**아시아 벽부터 넘어야 한다
남자 핸드볼 국제경쟁력 강화 절실**

남자의 경우는 세계의 벽을 논하기 앞서 아시아의 벽부터 넘어야 한다. 2010년 광저우 대회 금메달 이후 아시안게임 우승이 없는 남자 대표팀은 사실 이번 항저우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표로 하기는 어려운

전력이었다. 다만 아시아 최강으로 꼽히는 카타르에 이어 바레인이나 쿠웨이트, 일본, 이란 등과 2위 경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선 리그에서 바레인, 쿠웨이트에 연달아 패하면서 결국 4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특히 바레인, 쿠웨이트를 상대로 경기 막판까지 리드를 잡았지만 뒷심 부족으로 역전패해 아쉬움이 더 컸다. 지난해 5월 남자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홀란두 프레이타스(포르투갈) 감독은 올해 1월 세계선수권에서 32개국 중 28위에 그쳤고, 아시안게임도 4강 진출에 실패하는 등 아직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남자 핸드볼의 경우 체격과 파워를 앞세운 중동세가 한국, 일본에 비

해 비교 우위를 보이는 것이 최근 흐름이다. ‘중동의 양강’으로 꼽히는 카타르, 바레인은 물론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언제 만나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대들이다. 파리올림픽 본선 티켓을 이미 확보한 여자 대표팀과 달리 남자는 10월 18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 우승팀만 파리올림픽 본선에 직행하고, 준우승할 경우 지역 구분이 없는 세계 최종 예선에 나갈 수 있다. 한국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중국과 함께 A조에 속했다. 조 2위까지 주는 4강 티켓을 얻으려면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가운데 한 팀을 잡아야 한다. B조는 바레인, 이란, 쿠웨이트, 일본,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의 전력은 다소 떨어지고 나머지 4개 나라 중 2개국이 4강에 오를 전망이다. 최소한 결승에 올라야 파리올림픽 진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만큼 B조에서 올라오는 팀과 상대하게 될 4강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한국 남자 핸드볼은 2012년 런던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본선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11월 핸드볼 통합리그(H리그) 출범을 준비 중인 한국 핸드볼로서는 일단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대표팀의 부진이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부진한 결과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여자 대표팀의 경우 세계선수권과 올림픽에서의 선전, 남자 대표팀은 14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등의 성과를 낸다면 한국 핸드볼이 ‘제2의 도약’을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냉탕과 온탕 오간 시그넬호, 한국 여자 핸드볼의 미래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내년 파리올림픽을 향한 장도에 올랐다.

파리올림픽 예선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올해 5월 김 라스무센 감독의 뒤를 이어 새롭게 선임된 헨리크 시그넬 감독의 첫 공식 경기이기도 했다. 11회 연속 올림픽 출전권 획득이라는 쾌거와 아시안게임 3연패 실패에 온탕과 냉탕을 오간 가운데 지난 6개월 간 시그넬 호가 걸어진 행보와 다가올 세계선수권, 올림픽을 성적을 전망해본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대한핸드볼협회, 일본핸드볼협회

과감하게 감독 바꾼 여자 핸드볼, 시작은 산뜻

지난 4월, 대한핸드볼협회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 감독으로 스웨덴 출신 헨리크 시그넬(47)을 선임했다. 깜짝 발탁에 가까웠다. 지난 해 5월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김 라스무센 감독과의 계약을 빠르게 종료했기 때문이다. 라스무센 감독은 2021년 도쿄 올림픽 이후 외국인 지도자 선임 절차를 밟아 지도 철학, 경력, 적합성 등을 총 망라해 협회가 선택한 첫 결과물이었다. 12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전승 우승을 차지했으나, 만족할 만한 경기력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내려 방향을 선회했다. 파리올림픽 예선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사령탑이 바뀌는 어수선한 상황 속 대표팀은 5월과 7월 두 차례 친선선수촌에 소집돼 적응 훈련을 이어갔다.

가까이는 파리올림픽 예선과 아시안게임, 멀리는 파리올림픽을 내다보며 장도에 오른 시그넬 감독의 첫 데뷔 무대는 8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이였다. 적지인 일본에서 펼쳐진 파리올림픽 예선은 시그넬호의 데뷔 무대, 최근 일본의 한뼘 성장한 경기력 등이 맞물리며 여자 핸드볼에게 중요한 승부처가 됐다.

시그넬호의 출발은 산뜻했다. 인도(53-14) 중국(33-20) 카자흐스탄(45-24)을 차례로 격파한 대표팀은 최종전에서 홈팬들의 열띤 응원을 받는 일본과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펼쳤고 25-24 1점 차로 짜릿하



게 승리, 대회 4전 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시작으로 올림픽 본선 무대를 놓친 적이 없는 한국 여자 핸드볼은 이로써 11연속 본선 진출 대기록을 달성했다. 여자 핸드볼은 2004년 아테네 대회와 2008년 베이징 대회를 제외하면 모두 아시아 예선에서 올림픽으로 직행했다. 특히 올림픽 핸드볼에서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은 세계 남녀 핸드볼 역사는 물론 올림픽 구기종목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대기록이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저우서 겪은 ‘우물 밖 쓴맛’

시그널호는 파리올림픽 예선 우승의 기세를 아시안게임에서도 이어가고자 했다. 여자 핸드볼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0 베이징 대회부터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까지 8차례 아시안게임 중 무려 7차례나 금메달을 따냈다. 수십 년간 아시아 최강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자 핸드볼이었기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당연히 금메달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한국은 준결승서 개최국 중국을 30-23으로 꺾고 무난히 결승에 진출했다. 대회 3연패까지는 이제 딱 한 걸음만 남겨둔 상황. 결승 상대는 일본이었다. 하지만 결승전은 너무나도 처참했다. 한국은 일본에 19-29로 완패, 아시안게임 3연패 꿈을 이뤄내지 못하고 은메달로 마무리했다.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다. 결과는 물론 경기력에서도 일본에 완벽하게 밀렸다. 아시아 최강국으로서 명성은 온데간데 없었고 결승전 내내 저조한 경기력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은 완벽한 전력이 아니었기에 패배 충격은 더욱 컸다.

한국은 경기 시작 2분20초 만에 류은희가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2분여 뒤 내리 2골을 내준 이후부터 단 한 순간도 리드를 가져가지 못했다. 전반을 8-14로 6골을 뒤진 한국은 후반 초반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서서히 일본을 10-15, 5점 차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한국은 일본에 속공을 연달아 허용했고 턴오버를 남발하며 자멸했다. 여기에 일본 골키퍼 바바 아쓰코의 ‘선방쇼’에 막혀 추격 동력을 잃었다. 오히려 한국처럼 일본의 조직적이고 빠른 움직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류은희와 김보은이 나란히 3골씩 기록한 게 팀 내 최다득점일 정도로 아쉬웠다. 공격 성공률 역시 40%(19/47)에 그쳤다. 대한핸드볼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에 패한 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준결승 이후 13년 만이다. ‘참사’라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운 경기력에 ‘한국 여자 핸드볼은 더 이상 아시아의 맹주가 아니다’라는 등의 악평이 쏟아졌다.

향저우 참사는 예견된 일, 앞으로가 더 중요

예견된 참사였다. 전조증상은 이미 몇 차례 있었다. 사실 일본은 그동안 한국보다 한 수 아래 전력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2년 전, 쿠스모토 시게오 감독이 부임한 이후 20대 선수들을 대거 발탁해 과감하게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그리고 세대교체는 단 기간에 성공을 거뒀다. 일본은 센터백 아이자와 나츠키와 라이트윙 핫토리 사키가 중심을 이룬 가운데 스피드와 활동량, 조직력 등을 강화해 구색을 갖췄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과 올해 8월 파리올림픽 예선 결승, 두 경기 모두 한국이 역전승을 거뒀지만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뒤지지 않았다. 일본은 초반 5~6점을 앞서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경기력으로 한국을 위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의 경기력이 몰라보게 성장했다는 평가다.

SBS 우선회 해설위원은 “일본이 확실히 시게오 감독이 부임한 이후 세대교체가 잘 이뤄졌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마치 예전 한국 여자 핸드볼이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시기에 빠른 핸드볼을 보는 것 같았다”면서 “반면 우리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몸이 무겁고 발이 코트에 붙어있었다. 1대1 찬스, 샷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시그널호가 아시안게임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준비성 부족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승전을 지켜본 한 감독은 “준비의 차이다. 역대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는 그만큼 피나는 훈련과 노력이 있었다. 이번 대회 역시 아예 준비가 안된 건 아니지만 체력, 기술, 정신력 등에 걸쳐 여러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해설위원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즉,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사실 지난해 아시아선수권 때부터 전조 증상이 보였다. 몸 상태만 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며 “몸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1대1 찬스에서도 쉽게 득점을 못했고 뒤따라갈 수 있는 동력도 없었다”고 진단했다.

류은희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부터 10년 넘게 한국 여자 핸드볼의 부동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하지만 지난 파리올림픽 예선, 아시안게임에서 류은희는 우리가 알던 류은희가 아니었다. 노쇠화, 부상 영향으로 인해 예전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유럽 리그와 대표팀을 오가는 빡빡한 일정에 따른 피로도가 가중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자 핸드볼은 류은희 없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류은희의 뒤를 이을 어린 선수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지만 문제는 류은희가 대표팀을 은퇴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대체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다른 전문가는 “너무 과거에 젖어 들었다. 이제는 젊은 선수들을 키워서 제2,3의 류은희를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몇 년째 대표팀에는 노장 선수들이 계속 자리하고 있고 세대교체 실패로 이어졌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2023년의 한국 여자 핸드볼은 분명 비관적이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내걸며 스웨덴 출신의 시그널 감독을 선임했지만 아직은 적응기가 좀 더 필요해보인다. 시그널 감독은 부임 당시, 기존 한국의 팀컬러를 잘 유지하면서 유럽식 핸드볼 스타일을 접목하겠다고 했는데,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된 한국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금처럼 과거의 영광에만 젖어있다가는 한국 여자 핸드볼은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한국 여자 핸드볼은 한 차례 실패했던 아픔을 뒤로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당장 오는 11월, 세계선수권대회가 기다리고 있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세계선수권,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들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다. 실패의 쓴맛이 컸던 만큼 한국 여자 핸드볼은 더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훈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느낀 보완점들을 수정해 한국 여자 핸드볼 특유의 색깔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다가올 세계선수권, 파리올림픽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지금의 위기를 잘 헤쳐 다시 아시아 맹주로서 위용을 떨칠 수 있기를 바란다. 🏐

세계선수권 앞둔 女대표팀, 노르웨이·그린란드·오스트리아 조편성…전망-일정은?

대표팀의 일정은 상당히 빡빡하다.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숨 겨를도 없이 곧바로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대표팀은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3개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26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이하 세계선수권)에 참가한다. 이번 세계선수권은 2024 파리 올림픽을 7개월 여 앞두고 치러지는 전초전 성격의 대회여서 결과는 더 중요하다. 대표팀은 개최국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오스트리아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한국시간으로 11월 30일 오전 1시 오스트리아와 조별예선 첫 경기를 치르며, 두 번째 경기는 12월 2일 오전 1시 그린란드와 그리고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는 12월 4일 오전 3시 30분 노르웨이를 상대한다. 32개국이 참가하는 세계선수권은 각 조 1, 2위가 8강 토너먼트에 직행하고, 3위는 8강 진출 결정전을 거쳐야 하는 방식이다. 같은 조에 속한 노르웨이가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가운데 대표팀으로선 첫 두 번째 상대인 오스트리아와 그린란드를 꺾어야 8강 직행을 바라볼 수 있다. 대표팀은 2년 전, 2021년 스페인 대회에서 32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이번 세계선수권은 사상 최초로 3개국에서 동시 개최된다.



핸드볼과 우연한 만남, 그리고 끝없는 노력

남자 대표팀 이창범 통역

20년을 넘게 해온 통역이었지만,
핸드볼과는 한 번도 인연이 없었다.
더군다나 주변의 친구들은 조금씩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였다. 그러나 이창범 통역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그 결과 남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책임감 있는
목소리가 됐다. 이제 그는 여느 선수나 감독
못지않게 간절히 남자 대표팀의 올림픽
진출을 원하는, 남자 대표팀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글. 김희수 기자 사진. 본인 제공



**Q.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마무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인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인터뷰는 아시안게임 일정
이 모두 끝난 10월 8일에 진행됐다).**

대회 종료 후 하루하고도 만나질 정도만 쉬었고, 바로 선수촌으로 복귀해서 훈련을 함께하고 있어요. 파리 올림픽 예선전이 10월 18일부터라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성적이 다소 아쉬웠지만, 팀 분위기는 좋아요. 프레이타스 감독님이 안 좋았던 것들은 항저우에 놓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구성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Q. 분위기가 좋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통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통역 일을 시작하게 된 시기와 계기가 궁금해요.

1999년에 통역 일을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농구를 좋아했는데 군 제대 이후에 기아자동차 농구단에서 통역으로 일할 기회가 생겨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아자동차-SBS-KT&G를 거치면서 농구계에서만 10년을 일했어요. 이후에 남자배구 팀에도 1년 정도 있었고요.

Q. 핸드볼 대표팀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통역을 그만 두고 회사를 다니다가 잠시 쉬고 있던 터에 구인란에서 핸드볼 대표팀 통역을 구하는 걸 보게 됐어요. ‘나이가 많은데 될까’ 싶으면서도, 지원해봤어요. 면접까지 덜컥 가 버리더라고요. 당시 제 나이가 48세였는데, 그렇게 기회를 받은 게 신기했습니다. 면접에서는 대한핸드볼협회 임원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핸드볼 경기 영상을 보고 상황을 통역해야 했는데, 제가 그 날 통역을 엉망으로 해버렸어요(웃음). 그래서 떨어졌다 싶었는데 의외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Q. 통역을 하실 때 앞서 경험해보셨던 종목들과 핸드볼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핸드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채로 일

을 시작했기 때문에 룰이나 용어를 잘 몰라서 생기는 어려움이 컸어요. 지금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표팀 주장인 강전구 선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워낙 눈치가 빨라 상황에 맞게 도움을 많이 주는 선수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직도 많은 발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역은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역할이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막아야 할 선수를 잘못 전달하기라도 하면 경기 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 공부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좋은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정서적인 교감이 동반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이타스 감독과 어떻게 정서적인 교감을 하시지도 궁금해요.

저 역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통역을 할 때 한국인의 ‘정’을 꼭 전달하고자 노력해요. 프레이타스 감독님은 그 부분에서 저와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해서 친해지기가 쉬웠어요. 저도 20년을 넘게 통역하면서 포르투갈 사람과는 처음 만나봤는데, 한국인과 사고방식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을 때 삼겹살에 소맥을 곁들이는 것만으로 금세 친해졌거든요.

Q. 감독의 이야기를 통역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 감독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우선 감독의 언어를 통역하는 것은 선수 개인의 말을 통역하는 것보다 책임감이 큼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하고, 모든 선수들이 오해 없이 같은 의도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쉽지 않네요. 감독님이 최근에 자주하시는 말씀은 볼 관리 능력에 대한 강조와 실책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안게임에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면서 너무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었거든요.



Q.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안게임에서의 성적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통역이자 코칭스태프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핸드볼 대표팀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치킨을 팔 나이에 여기에 와버렸네요(웃음). 그래서 뚜렷한 목표는 없었는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아시안게임 메달이 목표가 됐었죠. 그걸 이루지 못한 건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까지 저에게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걸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이상의 목표는 없습니다.

Q. 그 목표가 꼭 이뤄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핸드볼과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대표팀에 합류한 뒤에 느낀 건 핸드볼이 정말 재밌는 스포츠라는 것이었어요.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을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볼의 인기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워요.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늘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





3년 만에 패권 탈환한 경희대 전국대학핸드볼통합선수권대회 결산

올해 마지막 대학 시합인 전국대학핸드볼통합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지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2023 전국대학핸드볼통합선수권대회'가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학 1부(엘리트)와 2부(생활체육)로 나뉘어 열렸으며, 남자 대학 1부의 경우는 전국체육대회가 사전경기로 열려 이번 대회가 공식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됐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회서 누가 올해 최강자 타이틀을 가져갔는지 살펴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시즌 2관왕’ 경희대, 명가 자존심 되찾아

남자 대학 1부에선 경희대가 3년 만에 남자부 패권을 차지하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결승전은 지난 5월, 경북 영주에서 치러진 대학선수권 대회에서 나란히 3위를 기록한 경희대와 조선대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경희대는 앞서 9월 9일, 예선 마지막 경기서 한 차례 맞붙어 28-25로 승리한 조선대를 맞아 경기 초반부터 리드했다. 경기 초반부터 빠른 공수 전환으로 기선을 제압한 경희대는 상대 실책을 유발하고, 이를 속공 득점으로 연결해내며 조선대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전반을 13-10으로 마친 경희대는 후반 들어 공격의 고삐를 더욱 당겼고 8점 차까지 벌리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경희대는 이후 벤치멤버들을 대거 기용하는 여유를 보였고, 조선대는 이 기회를 틈타 추격했으나 전세를 뒤집지

에는 역부족이었다. 경희대에서는 4학년 이혁규와 3학년 변서준이 각 6골, 강덕진이 5골로 팀을 이끈 가운데 조선대를 28-24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경희대는 올 시즌 태백산기종합대회(7월) 우승에 이어 시즌 2관왕에 오르며 핸드볼 명가의 자존심을 회복했다. 경기 종료 후 경희대만의 우승 세리머니가 있었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김만호 감독과 차재우 코치는 코트 한 가운데서 한껏 행가래를 받은 뒤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선수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김만호 감독과 차재우 코치를 난폭하게 발로 밟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김만호 감독은 ‘우승한다면 매일 맞아도 좋다’라며 해맑은 표정을 짓는다. 혹독한 훈련에 고통 받은 선수들은 1년 묵은 스트레스를 이때 싹 풀었다. 김만호 감독은 “우선 올해 마지막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해 기쁘다. 사실 1차 대회 아쉽게 3위의 성적을 거둔 뒤 학교로 돌아가 더 혹독하게 훈련을 했다. 그 대가를 보상 받는 것 같다. 특

히 드래프트를 앞둔 4학년들에게도 의미 있는 대회가 아니었나 싶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남자 1부 최우수선수(MVP)에는 5골을 기록한 강덕진이 선정됐다. 라이트 윙 포지션의 강덕진은 이번 대회에서 26골을 몰아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강덕진은 “우선 대학 4년 간 마지막 대회에서 유종의미를 거둬 기쁘다. 후배들이 군말 없이 잘 따라와줬고 무엇보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김만호 감독님과 차재우 코치님께 감사함이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대학 생활 4년 간 잘한 것보다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남는다는 그는 “항상 경기가 끝나면 이기든 지든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도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내가 좀 더 이끌어주지 못해 아쉽다”고 고백했다.

이제 대학에서의 굵직한 대회 일정을 마친 강덕진의 포커스는 다가올 드래프트에 쏠려 있다. 강덕진은 스피드와 공격력을 겸비한 대학 최고의 라이트 윙 자원이다. 강덕진은 “어느 팀에 입단하건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자신있다는 뜻이고 내가 맡은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다”며 “대학 2년 선배 김진영 선수처럼 어느 포지션에 갖다놔도 제 몫을 다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또, 진영이 형처럼 장차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를 누비고 싶다”고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했다.

‘여대부 최강’ 한국체대, 부상 악재 딛고 2관왕

앞서 열렸던 여자대학 1부에서는 백상사 감독이 이끄는 한국체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체대는 지난 5월, 2023 영주사랑 전국대학핸드볼 통합선수권대회에 이어 전국대학핸드볼통합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여자대학부 최강임을 과시했다. 이번 대회 여자대학부 1부에는 한국체대와 위덕대 2개 팀만 참가한 가운데 예선에서 두 팀은 1승 1패로 맞섰다. 예선 1차전에서 한국체대가 29-19로 크게 이겼지만, 2차전은 21-23으로 패했다. 3차전까지 가서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정해졌고 그 결과 한국체대가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체대가 전반을 9-12로 뒤지며 마쳤는데 후반에 18-11로 압도하면서

30-20으로 짜릿한 역전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한국체대의 백지현이 9골을 넣으며 선봉에서 공격을 이끌었고, 신현진과 김승원이 각각 8골씩 넣으며 우승을 견인했다.

결승에서 8골을 넣은 4학년 피봇 신현진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신현진은 “팀 내 부상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잘 따라와줘서 끝까지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핸드볼을 하면서 MVP를 받아보는 건 처음인데 그래서 더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첫 MVP 수상 소감에 대한 기쁨을 전했다. 그의 말대로 여자대학부 최강 한국체대는 올해 부상자가 속출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는 4학년 센터백 조은빈이 대표팀 차출로 이탈하는 등 전력누수가 발생했지만 한국체대는 주장 신현진을 중심으로 저학년 선수들이 분전하며 부상 악재를 딛고 곳곳이 여자대학부 정상에 올라섰다. 신현진은 “올해 유난히 부상자가 많았다. 이번 대회에도 고학년이나 포함 3명 밖에 없었다. 심지어 (조)은빈이는 대표팀 차출로 출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학년 후배들이 잘 버텼다. 100% 만족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열심히 뛰어진 후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신현진은 신장 170cm로 피봇 치고는 작은 축에 속하지만 견실한 수비 능력과 탁월한 센스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그는 다가온 H리그 신인드래프트 준비를 해야 한다. 동기인 조은빈과 더불어 많은 이가 그를 유력한 상위 순위 지명 후보로 전망하고 있다. 신현진은 “어느 팀에 가건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피봇치고 신장이 작은 편인데 대신 센스 있는 움직임과 블록슛 뜨는 타이밍에 장점을 갖고 있다. 대학에서도 그랬듯 프로에 가서도 신장이 큰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고 자리 확보를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

2023 전국대학핸드볼통합선수권대회 최종 순위 및 시상내역

구분	남자대학부 1부	여자대학부 1부	남자대학부 2부	여자대학부 2부
우승	경희대	한국체대	서울대	서울대
준우승	조선대	위덕대	영남대	한국외대
3위	강원대, 원광대		한국외대	영남대
최우수선수 (MVP)	강덕진(경희대)	신현진(한국체대)	우르스(서울대)	김지인(서울대)
우수선수	유효인(조선대)	최세진(위덕대)	전지현(영남대)	노희연(한국외대)





‘원 팀’이 된 인화여자중학교, 분주하고 화려했던 2023년을 마무리하다

인화여자중학교 핸드볼부의 2023년은 아름다웠다. 3월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중고선수권 우승을 시작으로 4월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 준우승,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 준우승, 9월 핸드볼코리아전국중고선수권대회 우승까지 대회마다 최상위권에 올랐다. 밝고 활기찬 팀 분위기도 계속됐다. 그야말로 분주하고 화려했던 한 해였다. 굵직한 대회들을 모두 마치고, 잠깐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인화여중 핸드볼부를 <핸드볼코리아>가 찾아갔다.

글. 김희수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핸드볼코리아>가 인화여중을 찾은 날은 10월 13일이었다. 올해 주요 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인화여중 핸드볼부는 휴식과 가벼운 훈련을 병행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었다.

이미영 코치는 “지금은 선수들의 컨디션에 맞춰 휴식 위주로 여유 있게 일정을 조율하는 시기다. 선수들이 아직 성장기라서 성장을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훈련 근황을 소개했다. 대회가 한창 진행될 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묻자 이 코치는 “대회가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전해 12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다. 12월에는 체력 훈련 위주로 시간을 보내고, 1월부터는 타 팀과의 연습 경기를 치른다. 2월부터는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경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듬고, 3월부터는 실 새 없이 경기와 훈련이 계속 이어진다. 우리는 소년체전 평가전에도 참여하는 팀이라 다른 팀들은 조금 여유가 생기는 4월에도 계속 훈련을 이어갔다. 이후 7월까지의 끊임없이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소화했다”고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초가을까지의 일정을 요약해서 설명했다.

선수들이 밝은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있는 사이, 이 코치와 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인화여중 핸드볼부는 1980년 10월 1일에 창단됐다. 강경민, 송혜수(이상 광주도시공사), 김수정(SK슈가글라이더즈), 김수연, 조하량(이상 부산시설공단) 등의 현역 선수들을 배출한 팀이기도 하다”며 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들려준 이 코치는 “나 역시 이곳이 모교다. 삼척시청에서 7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삼척여고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혼 후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10년 정도 경력이 단절됐다가 모교에서 코치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서 2021년 11월부터 코치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다.

인화여중이 2023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 코치는 “3학년 선수들이 1학년 때부터 출전 경험을 꾸준히 쌓아온 선수들이라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요령이 뛰어났다. 여기에 1~2학년 선수들이 훌륭하게 융화됐다. 언니들이 잘 끌어주면, 후배들은 그걸 보고 열심히 배웠다. 경기 내적인 측면에서는 끈끈한 수비를 바탕으로 속공을 연결하는 빠른 핸드볼이 잘 구현됐다”며 코트 안팎에서의 비결을 밝혔다.

이 코치는 계속해서 훈련 과정에서는 선수들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어린 선수들에게 벌써부터 강조하기는 좀 그렇지만, 희생정신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아픈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위해 더 뛰고, 다 같이 더 힘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수비 과정에서의 몸싸움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한다. 한국 핸드볼의 전통적인 강점인 수비 이후의 중앙 속공을 살리는 핸드볼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 과정에서 몸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선수들은 배운 대로 팀워크를 중시하고, 또 몸 사리지 않고 수비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우리 팀 경기는 재밌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코치는 말하는 내내 선수들에 대한 고마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사실 올해 골키퍼 김가현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걱정이 컸다. 그런데 본인의 출전 의지가 정말 강했다. 철저한 관리를 해주면서 끝까지 대회를 함께 준비했다. 정말 대견했다. 또 교내에서 선수들의 학업 태도에 대한 칭찬들도 들려온다. 공부를 하면서 운동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도 다들 하위권으로 처지지 않고 열심히 해주고 있다”며 선수로서도, 학생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을 칭찬했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인화여중이지만,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원체육의 공통적인 문제점인 선수 수급 문제에서는 인화여중 역시 자유롭지 않다.

이 코치는 “초등학교 한 군데(송현초)에서만 선수가 올라오는데, 학생



인원 자체가 줄고 있는 추세다보니 선수 수급도 자연스럽게 어려워졌다. 작년 같은 경우는 타 학교 피구부 출신 선수를 스카웃해오기도 했다”며 선수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코치는 덧붙여 “이전부터 코칭스태프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때로는 쉬고 있는 내 제자나 남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었다. 보조 코치가 들어온다면 더 원활한 훈련이 이어질 듯하다”라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지금 2학년 선수가 다섯 명이라, 내년에도 우리는 다섯 명의 3학년을 중심으로 나쁘지 않은 전력을 갖출 것이라고 본다. 좋은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밝힌 이 코치는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올해 우리는 ‘원 팀’으로 뭉친 덕에 좋은 경험들을 쌓았다. 하지만 내년에도 운동은 여전히 힘들 거다. 그래도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뛰는 선수가 되길 바란다”는 애정 가득한 당부를 전했다. 과연 ‘원 팀’ 인화여중의 2024년은 2023년 이상으로 빛날 수 있을까. 🏐

MINI INTERVIEW

주장 이주는 선수



Q. 올 한 해 인화여중 성적이 좋았습니다. 주장으로서 뿌듯할 것 같아요. 한 시즌을 보내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주장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선수들이 잘 따라줘서 어렵지 않게 편하게 했어요!

Q. 지금 피봇 포지션에서 활약 중인데요. 어떻게 핸드볼을 시작하게 됐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핸드볼을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 그 친구는 그만됐고 저만 계속 하고 있네요(웃음).

Q. 우리 팀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 &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플레이는?

우리 팀은 수비 이후 중앙 속공으로의 연결이 장점이예요! 또 룡슛도 정확하고, 중앙에서의 1:1 돌파도 잘해요. 저는 2:2 플레이에 강점이 있고, 수비도 자신 있습니다!

Q. 롤 모델인 선수가 있다면?

제가 레프트백에서도 뛰어봐서, 롤 모델은 레프트백에 한 명, 피벗에 한 명 있어요. 레프트백은 권한나, 피벗은 김고은 선수가 롤 모델입니다! 두 선수처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성실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Q. 내년의 계획은?

인천비즈니스고로의 진학이 예정돼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새로 만날 언니들과 합을 잘 맞춰보고 싶습니다!

Q. 인화여중 동료들에게 한 마디.

올해 팀워크가 참 좋았어요. 내년에도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어요!



리그 2연패의 삼척시청, 전국체전마저 제패하며 최강 입증

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2연패를 달성한 삼척시청이 제104회 전남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여자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 삼척시청은 10월 19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의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대회 핸드볼 여자 일반부 결승전에서 SK슈가글라이더즈를 28-26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수확했다. 김민서가 10골, 전지연이 8골을 터뜨리고 박새영이 40%의 방어율로 골문을 지키며 삼척시청의 승리에 앞장섰다. SK에서는 송지은과 김하경이 각 5골씩을 넣으며 분

전했다. 여자 고등부에서는 일신여고가 황지정산고를 34-30으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어진 남자 고등부에서는 선산고가 천안신당고를 25-24로 꺾고 지난해 은메달에 그친 아쉬움을 씻어냈다. 선산고 배창현이 7골을 기록했고 후반 투입된 골키퍼 홍의석이 50%의 높은 방어율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한편, 종목별 점수 집계 결과 핸드볼 종목 1위는 강원특별자치도(1,645점), 2위 충청북도(1,525점), 3위 인천광역시(1,164점)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마무리했다.

부산시설공단-제이콥에셋(주), 여자핸드볼선수단 후원협약 체결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훈식)이 지난 25일(금) 오후, 공단 본사 임원실에서 제이콥에셋(주)(회장 송석규)과 여자핸드볼선수단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제이콥에셋(주)은 2023-2024시즌을 맞는 공단 여자핸드볼선수단 후원을 위해 1천650만원을 지원한다.

남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피봇 박종규, SK호크스로 이적

남자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피봇 박종규가 SK호크스에 새 동지를 틀었다. SK호크스는 구단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PV 대들보 ‘박종규’ 선수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매경기 투지 넘치는 플레이와 화이팅을 보여주는 박종규 선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번 시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며 박종규의 영입 소식을 전했다. 신장 192cm에 몸무게 110kg의 탄탄한 체격을 갖춘 박종규는 2010년 대한핸드볼협회 선정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또 2010년과 2011년 핸드볼 코리아리그 챔피언결정전 MVP를 차지한 한국 남자핸드볼의 레전드다. 국가대표로 런던올림픽과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고 런던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약 3개월간 레바논 클럽팀에서 ‘외국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박종규는 지난 시즌 하남시청에서 활약한 바 있다. 리그 사상 최초로 외국인 감독인 누누 아우바레스 감독을 선임한 SK 호크스는 박종규를 영입하며 군 입대한 주전 피봇 박세웅의 공백을 메우게 됐다.



2023-24시즌 핸드볼 H리그 심판 사전연수 개최

곧 개막할 통합리그의 새 시즌을 대비해 핸드볼 심판들이 준비를 마쳤다. 한국핸드볼연맹은 “10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이틀 간 대한핸드볼협회 회의실 및 지하체육관에서 다가오는 2023-24시즌 핸드볼 H리그 심판 사전연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수는 H리그 사전연수를 신청한 자를 대상에 한해 최신 경기규칙/운영, 이론평가, 비디오평가, 체성분검사/체력평가/ 향후 계획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를 개최한 목적은 H리그 심판 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자질과 역량을 파악하고 H리그가 추구하는 심판상을 위한 전문 지식 습득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서다. 또 주·부심을 비롯한 심판진이 직접 판정에 대해 토론을 나누며 명확한 판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고, 심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핸드볼연맹은 11월 11일 개막을 앞둔 2023-24시즌 통합리그 H리그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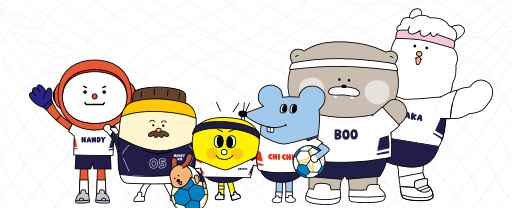


제1회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5개월 간의 대장정 마무리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10월 19일 청주에서 막을 내렸다. 지난 6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개막한 제1회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인 ‘올원픽(All Win Peak)’은 5개월 간 총 21경기를 소화하고 이날 폐막식을 거행했다. 행복모아, 상록포레스트 등 총 9개 팀이 참가한 이번 리그는 실력 차를 고려,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고 이날 그룹별 상위 2개 팀이 결승전을 치렀다. ‘모두가 승리하는 핸드볼’이라는 대회 슬로건에 걸맞게 경기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팀 선수들 전체가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2회 대회에서는 승강 플레이오프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리그는 발달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SK하이닉스와 대한핸드볼협회, 서원대학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관·주최했다.



우선 제 17회 아시아 U19여자주니어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무려 6전 전승으로 우승한 선수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대들이 흘린 땀방울이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어 제가 다 뿌듯하네요.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나봅니다. 일상속에서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뿐 아니라 초중고 학교체육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학부모로서 학교체육, 방과후 교실에도 핸드볼 수업을 열어서 모두들 땀의 소중함, 친구들과 함께 하는 친밀감, 소속감을 배우고 느낄뿐 아니라 핸드볼이라는 액티브한 활동으로 공부 스트레스를 날릴수 있는 재밌고 소중한 시간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매거진을 읽으면서 같은 스포츠를 하면서 같은 미래를 꿈꾸는 멋진 삼남매도 만나고 핸드볼의 매력에 저 또한 빠져들게 되네요. 핸드볼이 이렇게 멋진 스포츠였다니... <송나영>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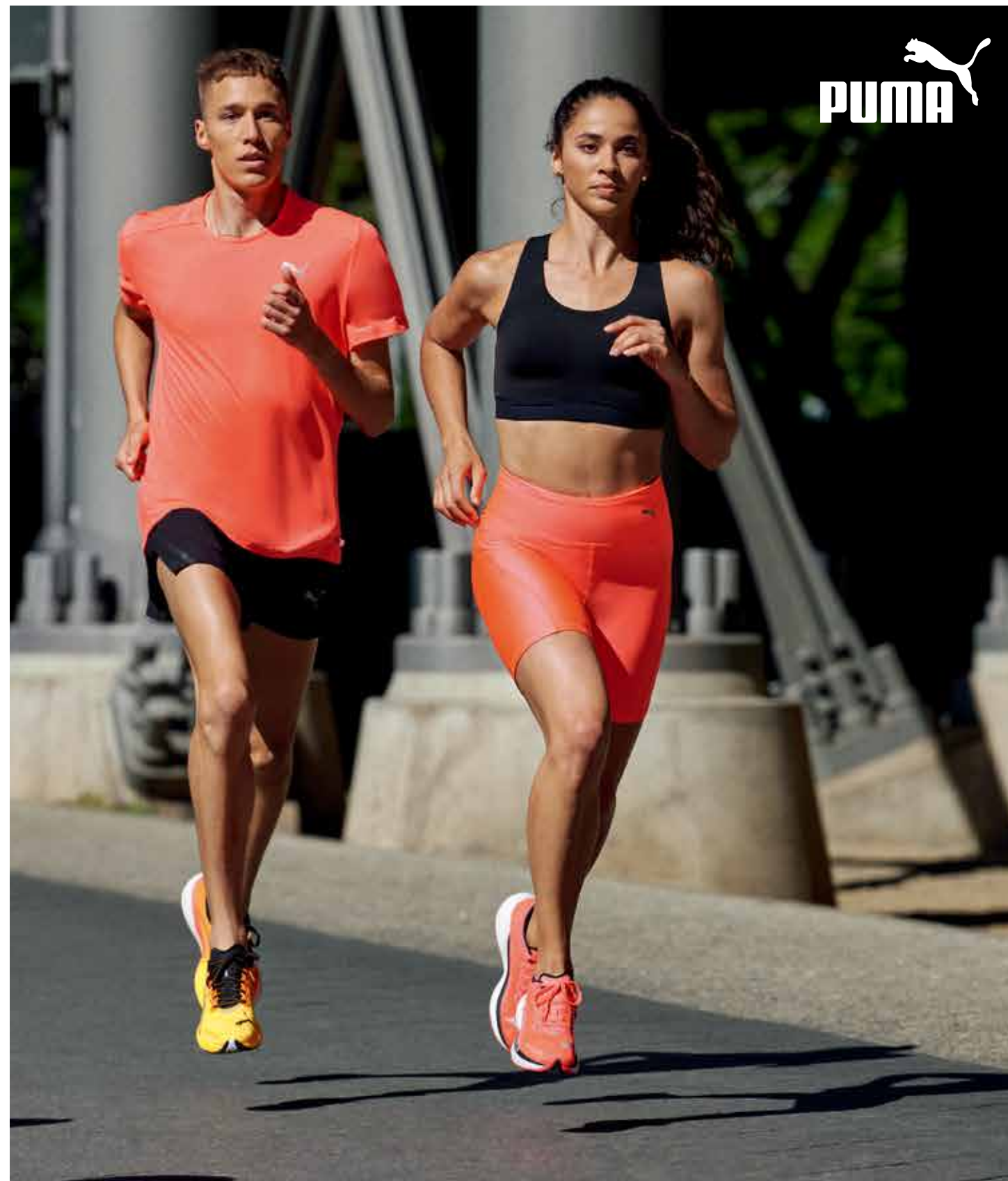
핸드볼코리아 9·10월호(vol. 66)에 대한 의견을 11월 10일까지 이메일(77basket@daum.net)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푸마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HF OFFICIAL GAME BALL



[Size3] **H3X5001-BW** [Size2] **H2X5001-BW**
Synthetic Leather / Hand Stitched / Latex Bladder

한국 수입, 판매원
(주)믹스스포츠
070-4367-1482



NITRO ELITE

푸마의 혁신적인 미드솔 기술, 나이트로 폼
뛰어난 경량성과 반응성, 쿠셔닝,
그리고 높은 에너지 효율성 제공



DEVIATE NITRO 2



DEVIATE NITRO 2 WNS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Shinhan

우리 아이들의 시원한 여름을 부탁해~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힘든 여름을 보내지 않도록
전국 369개 지역사회 아동센터의

★ 노후 냉난방기기 교체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S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